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효 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호 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택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호인

김효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정승아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택호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오지현 (인)</u>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9
II . 이론적 배경.....	10
A. 사이버언어폭력.....	10
1. 사이버언어폭력의 개념 및 특성.....	10
2. 사이버언어폭력의 현황 및 유형.....	12
3.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	13
B. 내현적 자기애.....	16
1. 내현적 자기애의 개념.....	16
2.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19
C. 정서표현 양가성.....	21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21
2.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	23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	24
D.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	26
III . 연구방법.....	28
A. 연구 대상.....	28

B. 측정 도구.....	28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28
2. 사이버언어폭력 척도.....	29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30
C. 연구절차.....	31
D. 자료 분석.....	31
IV. 연구결과.....	32
A. 기술통계	32
1.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분석.....	32
3. 상관관계분석.....	33
B. 내현적 자기에와 사이버언어폭력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34
V. 결론 및 논의.....	36
A. 논의 및 결론.....	36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38
참고문헌.....	40
부 록.....	49

표 목차

<표 1>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2> 사이버언어폭력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9
<표 3>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0
<표 4>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표 5>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33
<표 6>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33
<표 7>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34

그림 목차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과의 관계에서 정서 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35
--	----

ABSTRACT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im Hyo In

Advisor : Prof. Kim Tack-Ho,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 . For this purpose, I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400 men and women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Gwangju. I used questionnaires as a tool : Covert Narcissism Scal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Cyber Verbal Bullying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3.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relevant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vert Narciss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yber Verbal Bullying.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ediated partially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Cyber Verbal Bullyingn.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Romantic relationship dissatisfacti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 plays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so that it should understand psychological traits of Convert Narcissist and gives implication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In conclu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공간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게임과 같은 놀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대화, 만남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외로운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도 존재한다. 정보화의 발 빠른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상의 문제 행동들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우려도 높아 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증가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문제, 일탈 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비방, 욕설, 협박, 유언비어, 도배에 이르는 언어폭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SNS상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아파트 7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건(연합뉴스, 2016, 08, 15), 2016년 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끝끝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 (연합뉴스, 2016. 10, 18), 2011년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이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이어져 결국 자살로 이어진 사건(연합뉴스, 2011. 12. 23)등의 사례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인터넷 게시판, 채팅, 메신저, 이메일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욕, 막말, 비하, 명령, 협박, 비방, 험담이나 무시 등으로 타인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김현진, 2013). 또한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비방, 성적욕설, 도배,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보았다(조아라, 2010). 이처럼 사이버언어폭력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은 정보통신 매체의 특성상 전파성이 빠르고, 전송이나 복사가 용이하다는 특징(정철호, 2009)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익명성이라는 특

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지를 지니고 있다. 직접 글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글을 ‘퍼나르기’하거나 링크를 거는 행동만으로도 내용이 확산되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이버 언어폭력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해. 어디서든 쓸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특정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에서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가해되는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행, 협박과 같이 외부로 드러나기 쉬운 형태였다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의 핸드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고, 그 폭력의 피해 역시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폐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입기까지 부모나 교사가 적발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이버 언어폭력은 시간이나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이 없고, 피해자가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 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과 피해는 심각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응답자의 17.2%가 사이버언어폭력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17.5%는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해 유형 중 사이버언어폭력(15.8%)이 주된 가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윤경운(2006)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의 유형 중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중 단순 욕설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언어폭력을 겪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사이버 폭력 가해의 경우도 피해와 마찬가지로 언어폭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와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연계되고 있으며, 인터넷 신상유출 피해가 많았다. 그 심각성은 단순하게 사이버언어폭력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며, 심각한 범죄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의 보호의 아래 범죄라고 인식 하지 못하며,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사이버언어폭력을 무차별적으로 더욱 쉽게 행해 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여 이를 제도적인 환경을 고치는 것 보다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사이버언어폭력에 개입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사이버 폭력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이성식 2005)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과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가해자의 익명성의 여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김대권 2006; 김정은 2011; 성동규 외 2006; 송종규, 2005; 이인혜, 이고은, 두경희, 2014; 박수현, 2015)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가해경험, 부모애착, 가

족 내 폭력 경험, 교사와의 관계, 학교 만족도, 비행친구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윤주 및 양현일(2014)의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적대감, 언어폭력성이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한일 및 서은경(2016)에 따르면 자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자기애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기애를 살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기애 발달의 중요한 변환지점이다(Kohut & Wolf, 1978).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의 특징이 반영되는 시기이다.(맹수현, 2008). 청소년기에는 이상주의적 현실비판이나 자기세계에 빠져들게 하여 상대론적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단에 치우치게 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은 독특하며, 특별하다는 자아중심성에 의해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특별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옹대성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자기애성향자들의 특성과 일치한다.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은 특권의식, 과장된 자기 지각인 옹대함을 지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나, 공격성, 적대감을 표출한다.(Bushman & Baumeister, 1998; 1998 Raskin, Novacek, & Hogan, 1991; stuck & Sporer, 2002).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Bushman & Baumeister, 1998; Joubert, 1998; Kernis & Sun, 1994; Papps & O'Caroll, 1998 Raskin, Novacek, & Hogan, 1991; stuck & Sporer, 2002). 박세란(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으며,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언어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애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누군가 피드백을 하면 분노와 불안 같은 극단적인 정서(Rhodewalt & Morf, 1998)와 함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황수진(2016)의 연구에서도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과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McCann과Biaggio(1989)에 따르면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Hart와 Joubert(1996) 또한 자기애가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적대감, 폭력, 언어적 적대감 등의 점수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분노와 적대감을 더 많이 보이며,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이 높고, 비행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김성주, 2014; 이정민, 2009; Papps & O'carroll, 1998). 이러한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특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유사하다.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성취감이 결여되어,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열등의식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폭력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관심을 받고자 자기 과시를 하려 한다. 이들이 악플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과시하며,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공적인 광장으로 끌고 나와 현실에서의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표현한다(이성식, 2011). 이처럼 자신에 대한 특권의식과 자신에 대한 웅대성과 자기 중심성을 지닌 자기애성향자는 현실세계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충족하고 표현한다.

이러한 자기애는 표현 양상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 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기상과 자기 중심성이 주 된 특징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겉모습으로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웅대성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조은영, 2011).

앞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강선영(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보다 적대감이 크고 분노와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보다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았고, 타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 하였다(이준득 등, 2007).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훨씬 많이 느끼게 만들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소지가 된다(백승혜, 현명호, 2008).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여 폭력으로 나타낸다. 황수진(2016)에 따르면 자기에의 차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 박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세란(2005)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에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현적 자기에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분노 표현을 바로 하며,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보일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에들은 분노를 억압하여 이러한 억압된 분노는 적대감이나 분노 수준이 더욱 커져 사이버상에서 더욱 극단적이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며, 사이버환경의 특성상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환경 속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사이버언어폭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박수현(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조은영(201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성을 더욱 보였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성을 사이버언어폭력의 형태로 표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박수현(2015)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이버언어폭력도 심해졌고, 실명보다 익명의 상황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밝혀왔지만 이들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성격인 내현적 자기애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에 어떤 요인이 매개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간에 어떤 변인이 매개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외적 환경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이며,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Levenson, Carstensen, & Gottman, 1994)

이러한 정서표현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윤달아, 2012)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강한 정서반응을 초래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 하며, 강한 정서표현이 사고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갈등이나 이혼,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킨다(Gottman, 1993)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정서억제의 가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정서표현의 결여 그 자체가 병리적인기보다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King 과 Emmons(1990)는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정서적 표현의 억제가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는것에 대한 고민, 즉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는 수치스러운 자신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고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작용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이지연, 2008; 이은영, 2013) 여기서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King & Emmons, 1990). 강렬하게 경험되는 양가성이란 갈등의 한 형태로, 동일한 대

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빠르게 교차하는 것이며, 한 대상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개념의 불안정성으로 자신의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데는 어려워한다(강일선, 오경자, 2006). 그로 인해 정서의 일관성이 없어 분노 반응과 표현은 더욱 역기능적이다(Krizan & Johar, 2014). 특히, 내현적 자기에 높은 사람은 자기에 적 사고가 더욱 공격적이어서 분노가 높고 그 위험성 또한 크다(서수균, 2007; Sakellaropoulo & Baldwin, 2007). 이들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백승혜, 2008; 이준득, 2005). 즉,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위된(displaced) 형태로 표출한다(조은영, 2011). 분노가 억제될 경우 반추적 과정을 통해 분노감이 증폭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Berkowitz, 1984).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 현실에서는 분노를 억제하다 사소한 자극에도 전위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난다(황멜라, 2017). 따라서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만,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 반면 사이버 상에서 억제된 분노는 사소한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를 표출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이인혜, 2014). 최근 두드러지는 폭력의 형태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기 보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헐박하고, 유언비어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박민선, 2017), 김원(2008)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의 문제행동이 관련이 나타났다(박하연,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력보다 사이버상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헐박하기, 비난하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높은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평상시에 표현하고 싶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현실에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 되듯이(Agnew and White, 1992; 이성식, 2003) 사이버 언어폭력도 긴장 해소와 표출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일상긴장은 현실에서보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긴장과 화가 나도 폭력으로 표출되기는 다소 어렵다. 이는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 상황 뿐만아니라 비운전 상황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평소에 언어폭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이버 상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가 있다(황상민, 한규석, 1998). 몰개성화 이론(Kiesle, 1984)에 따르면 흥분한 군중속에 파묻히게 되는 경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아 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탈 억제를 촉진시켜 평소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도 사이버 상에서 평상시 표현하지 못했던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욱 공격적으로 표출 함으로써 사이버 언어폭력을 보인다(이인혜, 2014).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 언어폭력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황에서 억압,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사이버 언어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개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이버언어폭력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사이버언어폭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사이버언어폭력

1. 사이버언어폭력의 개념 및 특성

사이버 폭력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이미지전송, 웹페이지, 블로그, 채팅방, 토론방 등의 모든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Patchin & Hinduja, 2006). 또한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과 권리 침해 현상을 일컫는 말로 국내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비행, 인터넷 일탈행동, 사이버 인권 침해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인혜 2016). 사이버 폭력은 어느 이론에 기반을 두는가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의 대다수는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부호·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왜곡시켜 개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음란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정완, 1995)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폭력과는 다르게 가해자 이던 사람도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에게는 폭력이 놀이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 연령일수록 더 잘 나타난다. 사이버 공간은 직접적 대면이 없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다. 또, 사이버 공간은 현실과 달리 감시망이 없어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기 쉽다. 악질적인 경우, 표적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이버 상에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위키백과).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언어폭력이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은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다.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정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언어폭력은 인터넷 게시판, 채팅, 메신저, 이메일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욕, 막말, 비하, 명령, 협박, 비방, 헐담이나 무시 등으로 타인의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행위라고 정의 하였다(김현진, 2013). 또한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비방, 성적욕설, 도배,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보았다(조아라, 2010). 이처럼 사이버언어폭력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말한다.

사이버언어폭력은 법적으로는 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이나,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음란한 대화나 글을 올리는 등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을 욕설, 막말, 비방, 헐담, 헐박, 성적욕설, 도배,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폭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이버 공간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익명성을 통해 개인들은 연령, 성별이나 지위, 사회적 정체성이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정체를 숨길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준다(천정웅, 2000).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정철호, 2009).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물리적인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현실과 같은 위계적 권이가 통하지 않는다(두경희, 2013). 또한, 양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인터넷은 쌍방향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 작용이 양방향적이다(정철호, 2009). 이러한 양방향성은 이용자들을 수신자이면서 송신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기존의 일방향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조작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글들이 상호간에 오갈 수 있다(두경희, 2013). 댓글과 퍼나르기를 통해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댓글간의 욕설, 비방 등 명예훼손의 발신자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증폭된다(박중현, 2008) 사이버 공간은 빠른 확장성과 전파성을 지닌다.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복사나 전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올려지게 되면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정철호, 2009).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sharing)가

기본특성이 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정보가 전파된다(천정웅, 2000). 이처럼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은 이미 피해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그 피해를 인지하거나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박종현, 2008).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특징들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며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사이버언어폭력의 현황 및 유형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는 단순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 수준을 넘어 욕설 명예훼손 그리고 범죄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상 세계안의 모든 사람들이며, 이 안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고 둘 다 일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연령, 인종, 지역의 구분 없이 광범위해지고 있어 이러한 사이버언어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언어폭력의 발생 장소는 광범위 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비난이나 욕설을 놀이처럼 사용하며, 또래들을 따돌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 상으로 바뀌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한국 청소년개발원(이종원, 2001)의 인터넷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언어폭력은 사이버 범죄 중 무단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침해 다음으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21.8%) 조사되었으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주요 5적으로 욕설과 비방(41%), 저작권침해(28%), 아이디 절도(11%), 허위사실유포(6%), 음란물유포(5%), 순으로 나타나 사이버언어폭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를 합한 응답자의 47%가 사이버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44%가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 과제로서 욕설과 비방을 꼽았듯이, 사이버언어폭력은 가장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언어폭력 가해자가 언어폭력을 단순히 놀이로써 생각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입장이 상반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갈등들이 현실까

지 이어지기도 해 더욱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13년 사이버 상에서 누리꾼들이 벌인 공방이 실제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심각성을 안겨준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하거나 헐뜯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점점 결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성식, 2006). 최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등에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처벌이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실명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하기만 하다.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

그동안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언어폭력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을 사이버환경, 이용자 개인성향,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으로 나누었다(성동규, 2006). 이성식(2006)은 개인 동기 및 성향 요인, 사회문화규범 요인, 기회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또한 원다훤(2012)은 익명성, 미흡한 정책과 제도, 인터넷 윤리의식 및 정보통신윤리의식의 결여, 사회적 집단성 발현으로 구분했으며, 황지영(2008)은 개인적 요인, 매체 상황적 요인인 익명성, 구성원의 낮은 제제와 통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익명성과 개인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익명성은 사이버언어폭력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요인이다(박정순, 2004; 이성식, 2004a; 이철선, 2003; 최연숙, 2005).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현대의 대중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대중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현상(두산백과)을 의미하며 이러한 익명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익명성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인격 침해, 거짓정보 유포, 사이버 테러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성식(2004a)는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아의식 수준 및 통제력이 낮아짐으로써 충동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격화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표정이나

몸짓 등 사회적 맥락의 정보가 한정되어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통제력을 보인다고 하였다(황지영, 2008).

사이버언어폭력의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열등감 해소, 공격성, 단순한 재미추구, 자긍심 저하,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 낮은 자기 통제력, 스트레스 해소, 자기과시, 일상에서 비롯된 긴장 표출 등이 있다(김미화, 2014).

공격성의 경우 Suler(1996)는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현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조아라, 2009). 이에 다른 학자들도 사이버언어폭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적인 성향 중 공격성이 사이버언어폭력 가해 경험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였다(박순미, 2007; 성동규 외, 2006; 정승민, 2007; 조아라, 2009; 주지현, 2007; 황지영, 2008; 김미화, 2014).

자긍심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로서,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아를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상이 위협받게 되고, 자아에 손상이 오게 되면 누구나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Luckenbill, 1997; 이성식, 1996 재인용).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아증진 동기로 인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에 따라 이들은 사이버 상에서 일탈행동을 벌임으로써 현실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탈행동은 사이버언어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현시 공간에서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사이버언어폭력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위해(이성식, 2006a) 사이버언어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황지영, 2008).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의하면 낮은 자기 통제력은 여러 비행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에 빠지기 쉽다고 본다. 자기통제력은 순간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모험을 좋아하고 재미와 스릴을 추구하는지, 복잡한 일은 회피하고 단순한 일을 추구하는지, 분별력과 조심성이 없으며 근시안적인지, 인내력이 없고 쉽게 화를 내는지 등의 개인의 성향차이인데 이러한 성향의 차이가 범죄를 설명한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황지영, 2007). 다시 말해 사이버언어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공간

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우발적인 화로 인하여 상대방에 폭언을 행사하거나, 재미삼아 호기심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띄우고,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모두 청소년이 자신의 순간적인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해경, 2002). 이성식(2005a)의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 비행에 자기 통제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비행으로부터 얻는 재미나 쾌락적인 요소가 낮은 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도 통제력이 낮으면 사이버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Matheson, Zanna(1988)의 자아의식이론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자아는 공격 자아의식과 사적자아의식으로 나누어지며, 현실 공간에서는 주위 환경이 영향을 미쳐 공격 자아의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사이버공간에서는 비대면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어 평소 내재되어 있던 가치관이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사이버언어폭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평소에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이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망설임 없이 언어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황지영, 2008). 이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보다도 개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갖는 태도나 신념이 사이버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이성식, 2004a; 2005a),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언어폭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자기 통제력, 공격성, 자궁심저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이외에 조아라(2009)의 연구에서는 재미추구나 스트레스 해소가 원인이 됐으며, 이성식(2006a)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재미추구, 자기과시, 열등감 해소, 스트레스 해소, 일상생활의 긴장표출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익명의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가치관, 태도 변화등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을 낮추고, 낮은 자존감 및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정서적인 측면을 다뤄줄 수 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사이버언어폭력의 변화 가능한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두어 사이버언어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B. 내현적 자기에

1. 내현적 자기에의 개념

1) 자기에의 개념

심리학에 처음으로 자기에라는 용어를 사용한 Ellis(1988)는 “성적인 감정이 상실되고 거의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이하는 경향”을 Narcissus-lik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나승은, 2009). 이후 Freud는 “자기애적”이라는 개념을 초기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포함시켰고,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개념화 하였다. 그는 자기에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과대화, 과대망상, 이상화, 완벽추구, 자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경향 등을 언급하였고(FREUD, 1914), 심리학의 이론적 연구와 임상실제에서 자기에를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다루었다(Raskin& Terry, 1988).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에를 초기 발달단계의 부적절한 양육에서 비롯된 성격적 결함이라고 하였다(Kernberg, 1975; Kohut, 1971). 양육 초기에 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양육자가 제공하는 안전함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아이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적절한 보살핌의 원인에는 양육자의 비 일관적인 태도나, 아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거나, 아이에게 자기중심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 속에서 아동은 열등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여 아동 스스로 “자기애적 상처”를 받게 된다. 이런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아동은 과대하고, 거짓된 자기를 발달시켜, 이를 통해 양육자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킨다.

한편, 양육자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 발달시킨 특권의식은 아동의 의식세계를 분열 시키는데, 그 세계는 거짓자기를 통해 영원한 애정을 얻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Kernberg, 1975).

Kohut(1971)는 자기 심리학을 통해 자기에를 더욱 발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자기애성 환자의 특성을 무감각하다는 주관적인 느낌, 정도를 벗어난 활동, 열중과 열의의 부재라고 보았다. 그는 불안정성이나 이러한 구조의 퇴행 경향성을 자기애성 성격의 준거가 되는 진단적 징후라고 제안 하였다.

Kohut(1971), Kernberg(1975), Millon(1981)등은 초기 아동기 시절에 과대화 되어있고 취약한 자기가 비일관적이고 비공감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들은 성인기 까지 아동기에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에 정서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부적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재확인을 구하거나, 인지적인 측면으로 자기-정의의 욕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기애를 사회학습이론으로 발전시킨 Millon은 양육자의 상처나 보상 가설에 중점을 두고,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llon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아동의 자기 가치감과 특권의식이 부풀려 지는데, 이때 내재화된 자기상은 지나치게 강화된다. 그 결과 과장된 자기상은 좌절이 발생하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며, 가끔 일어나는 성취로 인해 자기상의 왜곡을 유지 시킨다. 또한 현실에서 거대화된 자기개념은 실패나 사회적인 불일치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자기애자는 타인에게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거나 반응에 대해 왜곡을 보이고도 한다. 또한 이들은 초기 아동기에 불안정한 애착경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종종 불신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기애 성향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자기개념을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확인 하지만, 과대화 된 자기상과 피드백은 늘 불일치하여 이러한 피드백의 타당성은 불분명해진다. 그래서 자기애자는 거의 사회적 피드백과 자기평가 간의 일치성이 모호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며,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며,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

DSM-IV-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서 자기애 성격장애의 진단 준거를 살펴보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이 있고, 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지고,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특별하거나 상류층 사람들(또는 기관)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또는 기관)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특권 의식을 지니고 특별한 대우 받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기 보다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하고,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공상)같은 광범위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자기를 위협한다고 지각할 경우, 위협을 가하는 특정

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성을 드러낸다. 즉 자기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 동기,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적응의 기제로 공격성을 사용한다(황수진, 2017) 자기에 성향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며(강은정 & 장성숙, 2007). 웅대하고 노출적인 자기에성향자는 지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하며, 강한 이상화 욕구를 가진 자기에 성향자는 적대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robbins & Dupont, 1992). 이러한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가 높고 이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

2)내현적 자기에

자기애를 연구한 많은 이론가들은 자기애가 과대한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자기애에서도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Kohut, 1971; Kernberg, 1975; Wink & Gough, 1990; Campbell, Miller, & Price, 2012; 김선영, 2013).

한편, Cooper(2000)는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누고, 두 가지 자기애 모두 동일한 자기애적 역동을 지니긴 하지만 다른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를 방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과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현성민 2016)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자기애를 얻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개념과 자기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우울과 정적관계를 보였고(박세란, 2005),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존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타인비하적인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이준득, 2004), 뿐만 아니라 진로 미결정이나 시험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이춘희, 2007; 최인희, 2005)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학업 상황에서 더욱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기애에 따른 방어 형태의 양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병리의 정도에 있어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외현적 자기애 보

다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찾아 볼 수 있다(박세란, 2005; 신희천, 2007; 이준득, 2004; 이춘희, 2007; 최인희, 2005; 김선영, 2013).

강선영(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보다 적대감이 크고 분노와의 관련성도 높게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분노표현을 외현화해서 현실에서 표현하는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분노를 억압하며, 억압된 분노는 적대감이나 분노 수준이 더욱 커지게 된다. 조은영(201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집단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전위된 공격성을 더욱 보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보다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았고, 타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 하였다(이준득 등, 2007).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훨씬 많이 느끼게 만들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소지가 된다(백승혜, 현명호, 2008).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여 폭력으로 나타낸다. 분노표현 양상에 있어서도 외현적 자기에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세란, 2005).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보다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여 회피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보다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내현적 자기에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버언어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지 못하거나 성취 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 이들의 잠재된 열등의식은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폭력 등의 부적응적인 행위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신을 과시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들이 악플을 올리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과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을 얻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 이처럼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공적인 광장으로 끌고 나와 현실에서의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 표현한다(이성식, 2011).

이러한 특성은 내현적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의 특성과 유사하다.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인 웅대성을 억압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조은영, 2011).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대학생보다 불안과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박혜진, 2003), 신경증적인 경향이 많다(정남운, 2001b)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며(박철현, 2011)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을 유발시킨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Hart & Joubert, 1998)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

진 대학생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쉽게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억제했던 분노를 부적절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고은정, 2011; 이사랑, 2014; 우현주, 2016).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발현되어, 분노,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 가해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세란(2005)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을 많이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언어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조은영(201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전위된 공격성을 더욱 보였다. 이는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억압된 분노를 사소한 자극을 받아 사이버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성을 사이버언어폭력의 형태로 표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예측한 연구는 적었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여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황수진(2016)에 따르면 자기애의 차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원, 박경(2012)의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폭력 및 데이트 폭력을 예측한다는 결과들과 박수현(2015)연구에서 밝힌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C. 정서표현 양가성

1.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외적환경 간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이다.

개인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신의 상태와 욕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적 정보적 기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와 욕구를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개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같이 공유하는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며,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정서표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서의 표현적 측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정서표현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고,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았다(윤달아, 2012)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강한 정서반응을 초래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고 하며, 강한 정서표현이 사고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 갈등이나 이혼,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킨다(Gottman, 1993)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정서억제의 가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정서표현의 결여 그 자체가 병리적이기보다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정서표현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시작하였고, 표현을 잘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개인과 표현을 잘하지 않으면서 억압되고 긴장되어 있는 개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행동을 그 행동 이면의 목표와 신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솔직히 표현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 의식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한다(Gross & Levenson, 1997; King & Emmons, 1990).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잘 표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병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인혜, 2014 ; 이주일, 황석현, 하정원, 민경환, 1997; Pennebaker, 1995; Rogers, 1957). 정서표현 억제(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란 자신의 감정을 의식하지만 표현은 결여된 것, 또는 진행 중인 정서에 대한 표현 행

동을 숨기는 것으로 정의된다(Gross & John, 2003). 정서를 억제하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낙관주의 등의 긍정적 지표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를 조절 효능감도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이인혜, 2014; 한아름, 2010; Campbell, Barlow, Brown & Hoffmann, 2006; Feldner, Zvolensky, Eifert & Spira, 2003; Gross & John, 2003).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 갈등’ 또는 ‘정서표현 양가성’이라고 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 정서표현 자체보다 표현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갈등이 더욱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인혜, 2014)

양가성이란 한 가지 대상을 원하면서도 또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양가성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 특성으로 연구되어 왔다(Katz & Emmons, 1990). 이러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중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가 양면성을 일으키기 쉽다고 설명한다(Emmons & King, 1987). 왜냐하면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가치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의미한다는 가치가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화된 가치가 개인 내면에서 심리적 과정의 표현에 대한 양면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인혜, 2014).

또한 사회적으로 화, 공격성,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은 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하정, 1997). 이는 정서표현의 양가성은 불안한 정서 상태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정서는 부정적 정서표현 상태로 이어져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 될 수 있다(김 원, 2008).

2. 내현적 자기에와 정서표현 양가성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내부의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존감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이은영, 2013)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는 정서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보다 크게 경험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어떤 정서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정서들을 조절하기 위해 좋은 대상을 만나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적응적인 방식보다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부적응적

인 방식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신혜인, 2009)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며 결핍되었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강문선, 2011). 또한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낮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신의 부적절함, 즉 수치스런 자기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반복된 방어 작용의 하나로써 정서 인식의 둔화와 그것을 언어화 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지연, 2008).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대학생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문선,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많을수록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2011; 박보림, 2014; 백승혜, 현명호 2008).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는데(강문선, 2011),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 갈등을 많이 할 것이다(윤달아, 2012) 이에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박효경, 2017)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

이러 언어폭력은 오프라인 현실에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 되듯이(Agnew and White. 1992; 이성식, 2003) 사이버 언어폭력도 긴장 해소와 표출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일상긴장은 현실에서 보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긴장과 화가 나도 폭력으로 표출되기는 다소 어렵다. 이는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

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상황 및 비 운전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여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거나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백승혜, 2008; 이준득, 2005). 즉,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위된(displaced) 형태로 표출한다(조은영, 2011). 분노가 억제될 경우 반추적 과정을 통해 분노감이 증폭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Berkowitz, 1984).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 현실에서는 분노를 억제하다 사소한 자극에도 전위된 공격의 형태로 나타난다(황멜라, 2017). 따라서 현실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만,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 반면 사이버 상에서 억제된 분노는 사소한 자극에 반응하여 분노를 표출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나타난다(이인혜, 2014). 최근 두드러지는 폭력의 형태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기 보다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헐박하고, 유언비어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박민선, 2017), 김원(2008)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의 문제행동이 관련이 나타났다(박하연,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력보다 사이버상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헐박하기, 비난하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이버언어 폭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혜, 2014).

D.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

사이버 언어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 하지 못하고 사이버 상에서 표출을 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성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완, 2005).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가진다(이지연, 2008). 이는 수치스러운 자신에 대한 직면을 회피하고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작용으로, 정서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이지연, 2008; 이은영, 2013)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분노, 화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하는것에 대해 더욱 어려우며, 평상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에 갈등하며, 슬픔이나 분노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회피하여 불안과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로 이어진다(Eisenberg & Fabes, 1992).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이버 상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는 익명의 상황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평소 억누르던 감정을 표출하기 쉽다.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소와

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관련성이 있다.(이인혜, 2014) Parkinson(2001)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상황 및 비 운전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아 의식의 작용을 낮추고 탈 억제를 촉진시켜 평소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던 사람들도 사이버 상에서 평상시 표현하지 못했던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비판이나 반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증가 시키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절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다. 이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정서표현을 어려워 하지만 사이버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공격적으로 표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사이버언어폭력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언어폭력에 선행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M시에 위치한 M, Y고등학교, G광역시에 위치한 G 고등학교의 재학생 1~3학년 남·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남학생 154명(42.5%), 여학생 208명(57.5), 총 3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B.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45문항), 사이버언어폭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20문항),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21문항)로 총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모두 자기 보고식 척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내현적 자기애척도(CNS)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 하였다. 총 45문항이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는 인정욕구 /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 / 자기중심성(9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 / 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순서대로 .92, .82, .78, .84,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각 요인별 순서대로 .82, .806, .865, .864, .594 으 로 나타났다.

<표 1> 내현적 자기에 성격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	.82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	.806
착취/ 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	.865
과민/ 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	.864
소심/ 자신감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	.594
전체	25		.92

*역채점문항

2. 사이버언어폭력척도

본 연구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자관(2007)이 카지노 딜러가 개발한 검사지를 김현진(2013)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구자관의 언어폭력 검사 11개 문항은 자아개념손상 6문항, 모욕감 5문항으로 자아개념 손상영역, 모욕감 영역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언어폭력 유형 및 정의를 바탕으로 검사지를 재구성하였다. 검사에 대한 모든 응답은 1점 '전혀안했다' 또는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많이 했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정도 및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사이버언어폭력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1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2> 사이버언어폭력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개념	1, 2, 3, 4, 5, 6	6	.927
모욕감	7, 8, 9, 10	4	.941
전체	10		.961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갈등 척도를 최해연(2008)이 한국문화의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AEQ-K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고 싶어 갈등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느끼는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인 ‘자기 방어적 양가성’과 타인중심적으로 관계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인 ‘관계관여적양가성’의 이 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총 21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갈등하는 경향이 많음을 뜻한다.

위 척도가 비록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김현주(2013)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2 이였으며, 박하얀(2015)의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92 신뢰도를 보였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아동, 청소년, 성인 세 집단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인과 고등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의 차이는 문제행동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하는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22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방어적 양가성의 내적 합치도는 .934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893 정서표현 양가성의 내적 합치도는 .937로 나타났으며 문항구성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N = 405)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방어적양가성	1, 2, 3,4, 5, 6, 7, 9 ,10, 11, 12, 14, 15	13	.893
관계관여적양가성	8, 13, 16 , 17, 18, 19, 20, 21	8	.845
전체	21		.922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7년 0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G광역시, M시에 소재한 G, M, H 고등학교 1, 2, 3학년 남, 여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누락된 27부의 데이터를 제외한 총 373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 언어폭력, 정서표현양가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뒤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응답방법 등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와 가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 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 모델별 Sobel test(절대값>1.96)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82)

요인	구분	N(%)
성별	남	154(42.5)
	여	208(57.5)
학년	1학년	69(19.1)
	2학년	233(64.4)
	3학년	60(16.6)
연령	16	74(19.9)
	17	215(59.4)
	18	64(17.7)
	19	9(2.5)

※ 결측치에 의하여 요인간 빈도에 차이가 있음.

피험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제시된 <표>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수는 남자는 154명(42.5%), 여자는 208명(57.5%)이었다. 연령은 16세 74명(19.9), 17세 215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18세 64명(17.7), 19세 9명(2.5)이다.

학년은 1학년 69명(19.1%), 2학년 233명(64.4%)이 가장 많았으며, 3학년 60명(16.6%)이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 언어폭력, 정서표현양가성의 기술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6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내현적 자기애	125.93	26.165	174	57
사이버언어폭력	20.22	10.332	50	10
정서표현양가성	65.72	14.145	100	21

3.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Pe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N=362)

	1	2	3
1. 내현적 자기애	1	.357**	.416**
2. 사이버언어폭력	.357**	1	.242**
3. 정서표현 양가성	.416**	.242**	1

** $p < .01$

표 5에서 주요 변인들과 주요 변인들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의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격과 종속변인인 사이버 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57, p<.01$)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과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416, p<0.1$),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242, p<0.1$)

B.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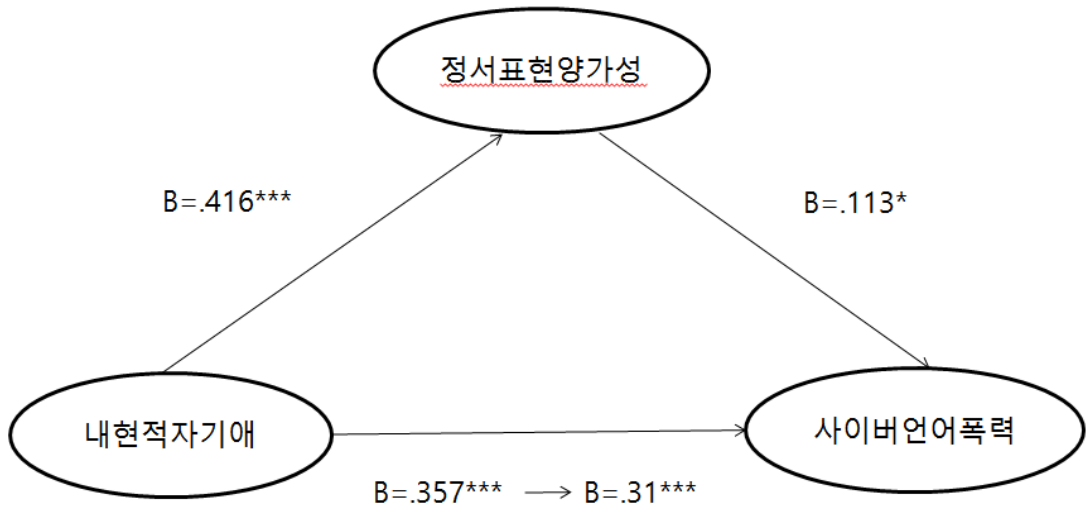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57, p<.001$),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25, p<.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113, p<.05$),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357$)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31$).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2%이었으며, 내현적자기애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사이버언어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 설명량이 13%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은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N=362)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 ²	F
1단계 내현적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141	.019	.357	7.252***	.127	52.584
2단계 내현적자기애	정서표현양가성	.225	.026	.416	8.688***	.173	75.486
3단계 내현적자기애	사이버언어폭력	.122	0.21	.310	5.749***		52.584
	정서표현양가성	.083	.039	.113	2.103*	.138	52.584

*P<0.5, **p < .01, ""P<.001

모형의 검증성을 높이기 위하여 Sobel-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Z값을 검증해 본 결과, Z 값이 2.45,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 되었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도식하여 그림 <그림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분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이버언어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언어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이버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사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성격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보다 다루기 쉬운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계획이 개입을 제시 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는 사이버언어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사이버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선행연구(박수현, 2015)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 오프라인보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사적 자아의 의식이 더욱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행위자들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내적 태도대로 행동한다(이성식, 2001) 또한 탈억제화 되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보일수 있다는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오프라

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수 있다(Kowalski & Limber, 2007). 그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보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사이버상에서의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에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은영(2013)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내부의 부정적이고 취약한 자존감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서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식의 소극적이고 부적응적인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고 한다(신혜인, 2009).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거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더욱 잘 나타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과 사이버언어폭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사이버언어폭력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인혜, 2014)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평소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갈등하던 사람들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평소보다 언어적이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더욱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다. Parkinson(2001)의 선행연구처럼 사이버공간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 사이버 언어폭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선정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에와 사이버언어폭력 간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정서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관계에서 취약성과 심리적 불편감을 느낀다(우성범, 2012) 오프라인 상황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지닌 사람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사적 자아의식이 더욱 작동되어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분노나 적대감을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표현하게 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다른사람들의 평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사이버 상황에서 실제상황 보다 더욱 예민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익명의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윤보영, 2011)의 연구와 일치하기

도 하며, 억압된 분노감이나 정서표현을 전위된 공격의 형태로 사이버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분노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표출 할 수 있다.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이나 실태 연구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된 특성 중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을 다루었다는 점과 사이버언어폭력 상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설정하여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이버언어폭력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언어폭력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치기 힘든 성격적 측면인 내현적 자기애를 다루기 보다는 기능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정서표현양가성에 관한 상담적 개입이나 사이버 언어폭력집단의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의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정서표현양가성만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을 많이 보이는 내담자를 위하여 사이버언어폭력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적응적인 요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변인의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M, G지역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들 또한 최근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보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보다 일반화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방어적 태도로 응답하였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에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Freud(1953; Kernberg, 1975)에 따르면 자기에적 성향의 사람들은 억압이나 부인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자기보고식 검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 관찰법, 사회측정법, 실험 등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사이버언어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내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이 내현적자기애와 사이버언어폭력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후속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입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영. (2011). 직장인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및 공격성의 관계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심리치료**, 14, 969-880.
- 강일선, 오경자. (2006).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606-607.
- 고경희, (2017). 아동용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적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학지사.
- 권희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대권 (2006).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 인터넷을 사용하는 20대 남·여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국 범죄심리연구**, 2(2), 145-174.
- 김동일, 정여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 연구**. 13(2), 645-663.
- 김미화 (2009).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97-318
- 김미화 (2014). 중학생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주. (2014). 내현적자기애, 자기자비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김소연, (2015).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 고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9(10), 121-141.
- 김영웅 (2015).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과사용의 관계 :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미 (2010). 이혼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성, 정서표현 양가성 및 문제행동.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한울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블링 가해의 관계 : 자기애와 분노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홍혜영. (2013).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181-209.

김현지 (2015).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증상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 (2013).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원, 이지연. (2016).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고통 감내력, 자기 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016년 6월 제 24권 제, 24(1), 173-196.**

두경희, (2013).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박민선, (2017). 초등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박세란 (2003).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수현 (2014). 중학생의 사이버언어폭력과 내현적 자기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연, 신민섭, &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663-679.*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 박효경. (2017). 미혼커플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만족도 사이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 신혜인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정서경험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합뉴스 (2011. 12. 23). '학교폭력'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 파문 확산.
- 연합뉴스 (2016. 08. 15). 사이버폭력, 또 다시 중학생 자살.
- 연합뉴스 (2016. 10. 18). SNS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
- 오장건, (2010). 고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양식 및 공격성의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현주, (201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분노 억제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다훤, (2011).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 윤경운.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보영, 이순철 (2011). 익명상황의 운전행동과 운전분노 및 정서표현갈등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7(3), 321-341
- 이강애. (2017). 청소년기의 내외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식, 황지영 (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형사정책연구 제73호**, 2008, 3, 167-189
- 이성식. (2003).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식. (2006).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 421-440.
- 이성식. (2011). 사이버 범죄학: 원인, 유형, 대책. 그린.

- 이아람, (2017).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 부정적 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윤주, 양현일, 이아름, (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학 연구, Vol.15 No.6**
- 이은영, (2013).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 정서인식,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2014). 청소년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09).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준득 (2005). 내현적·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춘희. (2007).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310-311.**
- 임지영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정서조절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정현. (2009). 청소년의 비행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여주. (2016). 사이버폭력 연구 동향과 과제 : 사이버 폭력 척도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7(1) 1-23**
- 정여진 (2015).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완. (2004).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넷법연구, 3, 265-299.
- 정완. (2008).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6,**

167-190.

- 정진호 (2016).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철호. (2009).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12(4), 373.
- 조운경, 유재웅. (2016). 청소년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30(1), 111-136.**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이미화. (2012). 정서억제와 정서표현양가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연구.
- 조한일, 서은경 (2016). 중학생의 자기애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21-41**
- 천정웅. (2000). 연구논문: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최원희, 손정우, 김영랑, 이상익, 신철진, 김시경, & 주가원.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2), 103-111.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015). 2015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수정 (1998).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내재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황덕미 (2016). 스마트폰 SNS에서의 초등학생 사이버언어폭력 실태.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수진, & 김현주. (2016). 자기애와 학교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 57-85.**
- 황엘라, (2017).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 : 정서표현양가성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 황희숙, 이영식. (2016). 정서표현 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335-345.**

- Agatston, P. W., Kowalski, R., & Limber, S. (2007). Students' perspectives on cyber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59–S60.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 475.
- Ainsworth, M. D., S. Bleha, J Water,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ry, C., T., Loflin, D. C., Doucette, H. (2015). Adolescent self-compassion; Associations with narcissism, self-esteem,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t-risk 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7*, 118-123.
- Björn Mayer, Paul A. Pilkonis (2011). A Historical Review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ty In Campbell, W.K., Miller, J. D.(Eds).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hreatment* (pp. 434-444). New Jersey: Wiley & Sons.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
- Campbell, W. K.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54-1270.
- Cole, I. (1948). *Psychology of adolescence*. NY: Rinehart.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per, A. M. (2000). Fu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d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53-74). London; Jason Arosen Inc.

- Crowell, J. A., Fraley, R. C., & Shaver, P. R. (1999).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and adult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434-465). New York: Guilford Press.
- Emmons, R. A., & Kaiser, H. A. (1996).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79-98.
- Erikson, E. H. (1968). *Identify: Youth and oricis*. New York: W. W. Norton.
- Feintuch, B. (1998). *Adult attachment, narcissism, shame, and defensiveness*. Unpublished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95.
- Hagan, M. S., Hollier, E., O'Connor, T. G., & Eisenberg, M. (1992). V. PARENT CHILD RELATIONSHIPS IN NONDIVORCED, DIVORCED SINGLE MOTHER, AND REMARRIED FAMILI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2 3), 94-148.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1), 161-16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 (1988). Romantic relationship: love, satisfa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980-988.
- Hinduja, S, & patchin, J,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nduja, S, & patchin, J, (2012). Cyberbullying: Neither an epidemic nor a rarity.

-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5), 539-543
- Joinson, C., O'CALLAGHAN, F. J., Osborne, J. P., Martyn, C., Harris, T., & Bolton, P. F. (2003). Learning disability and epilepsy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of individuals with tuberous sclerosis complex. *Psychological medicine*, 33(02), 335-344.
- Kernberg, O. F. (1975). *Ba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rizan, Z., & Johar, O. (2015). Narcissistic rage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5), 784.
- Lars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returns*. New York; Norton.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1), 55-58.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John Wiley & Sons.
-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inson, B. (2001). Anger on and off the roa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507-526.
-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 Pennebaker, J. W. (1995).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An overview*. Washington

-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0).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 59-48
- Suler, J. (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 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부록

<부록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 다음 문항들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숫자에 “O”표 해주십시오. 평소 자신을 떠올리면서 빠짐없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	1	2	3	4	5

	다.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 보다는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길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 2> 사이버언어폭력 척도

◎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을 읽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시를 해주세요. (문항의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 게시판, 카페 및 블로그, 게임, 채팅, 메신저, 이메일, 쪽지, sns 등을 포함합니다.)

문항 내용		전혀 안했 다	거의 안했 다	보통 이다	많이 했 다	매우 많이 했 다
1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4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5	인터넷상에서 익명 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 연속적으로 글을 써서 도배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인터넷상에서 익명 으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 리플을 통해 싸운 적이 있다.	1	2	3	4	5
8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놀리는 글을 쓴 적이 있다.	1	2	3	4	5

9	인터넷에서 공인이나 다른 네티즌을 공격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인터넷에서 다른 네티즌이나 연예인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린 적이 있다.	1	2	3	4	5

<부록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O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안했 다	거의 안했 다	보통 이다	많이 했다	매우 많이 했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이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 할 수 가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 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종종 내가 느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웬지 망설여 진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당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느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감정들을 감춰두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내가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더라면 하고 회상할 때가 있다.	1	2	3	4	5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남자 / 여자친구	1	2	3	4	5

	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남자 / 여자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억누르려 한다.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나는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